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

중국이 배달민족의 ‘신주(神主)’를 노리고 있다

글_심범섭 인사점 대표

배달민족의 혼은 살아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판 붙어 보자’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서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역사도전을 겨우 잠재워 놓은 터에, 이번엔 또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국가기획물로 ‘신주전쟁’을 걸어오고 있으니, 경우를 떠나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급기야 이 땅의 방송 카메라가 몽땅 요동벌로 달려가 한판 문화전쟁을 벌인다. 명장 연개소문은 북경 인근의 단하를 건너 중국을 위협하고 주몽과 대조영은 고구려의 머리와 발끝에 붙어서 우리 역사의 끊어진 ‘혈관’을 봉합하는 수술을 한다. 이 요동벌의 대 서사시를 보면서, 국법에도 없고 교과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민족의 조상이 실상 백성 하나하나의 가슴속에는 돌아가시지 않고 펄펄 살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에서 사학자 이덕일과 김병기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야말로 ‘중국의 조상인 현원황제와 염제신농에 맞서 싸웠던 ‘치우천왕’ 바로 단군의 후손’이며 ‘고조선’의 적자라고 말한다. 따라서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기획 아래 북경 인근 탁록에 ‘중국의 세분 조상’을 모신다며 ‘삼조당’을 짓고 여기에 고조선의 ‘단군 치우천왕’까지 모셔놓고 있는 것은 중국이 현재의 중국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모든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에 영구히 편입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벌리는 역사 전쟁이라는 것이다. 저자들은 그 부당함을 문헌 사료와 유물은 물론 생활양식 등 주류사학의 정통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아직도 식민사관에 의존하는 이 땅의 주류 사학을 비판하고 질타한다. 이 주류 ‘식민사관’을 때려잡지 않고는 주변국의 우리역사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고 탄식한다.

저자들은 중국의 이런 의도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수민족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변경지대 소수민족의 뿌리를 자국역사에 편입시킴으로써 소수민족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은 물론 국운 융성기를 맞은 중국이 제국주의적 ‘패권주의’까지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한다. 그 의도를 내놓고 드러내어 실천에 옮기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바로 ‘서남공정’과 ‘서북공정’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한 ‘동북공정’은 분명히 ‘역사전쟁’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저자들은, 중국의 두 조상인 현원황제와 염제신농에 맞서 싸우며 ‘고조선’을 건국했던 ‘치우천왕’ 단군이 우리의 고대 조상이었음을 정통 사학의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고 민족의 혼을 찾는 것이며, 중국의 동북공정이란 역사공격에 대항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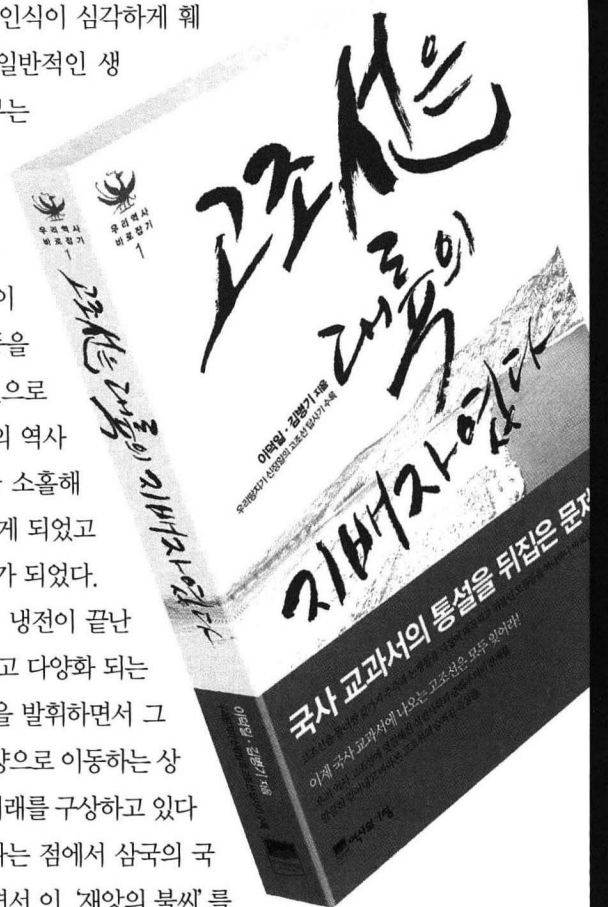
우리의 분단구조와 군부정권이 준 빌미에 주목해야

그러나 미안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다는 아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해 왔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장 조선의 ‘사대주의’와 만나게 되고 거기에 이어지는 ‘식민사관’과도 만나게 되지만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친미정부로 이어진다. 곧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20세기 냉전에 휘말려 6·25라는 민족상잔을 겪으며 분단체제로 이어진다. 그 역사의 긴 터널을 살아

내야 했던 우리 민족의 개인이나 국가가 생존논리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역사의 공격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야말로 역사갈등의 원인을 우리역사가 내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두 저자의 시야엔 이런 자기성찰이 전혀 없으니 옥에 티라고 할까.

따라서 우리는 역사전쟁의 본질이 약육강식을 전제로 한 패권주의적 역사관에 의해 미래를 기획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들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역사전쟁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군사쿠데타와 그 정부에 의해 우리 자신의 역사가 유린된 데 있음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 역사의 암흑기였던 5·16 이후의 군사정부는 자신의 반 역사성을 호도하기 위해 세계냉전의 한 축인 반공논리에 기대어 분단체제에 안주하면서 우리 역사의 뿌리가 냉전의 다른 한쪽으로 넘어가 공산권에 접목되는 것을 우려하여 북쪽지역에 대한 현실 인식은 물론 역사인식까지 제한했다. 이를 식민사관의 아침이 거들면서 민족의 뿌리인 고구려라던가 고조에 대한 역사인식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생각은 지각 있는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반면에 5·16이후의 군사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를 의도적으로 남쪽지역에서 찾고자 했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은근히 신라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의 왜곡을 기도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북쪽은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입장에서 남쪽은 사회주의권으로의 역사기피현상에서 고구려나 고조선의 역사는 우리 민족사의 원류에서 제외되거나 소홀해지거나 훼손되는 역사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 주변국의 역사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20세기 냉전이 끝난 후 세계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다원화 되고 다양화 되는 중에 한·중·일의 경제력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그리고 경제력이 서구에서 인구가 많은 동양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삼국이 경쟁적으로 패권주의적 미래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역사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삼국의 국력이 기획하는 시야와 관계망을 주시하면서 이 '재앙의 불씨'를 제어하는 한편 훼손된 우리 역사의 복원작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추천**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
이덕일 · 김병기 지음
| 역사의아침 | 값 13,000